

李退溪의 思想과 行動(四)**

阿部吉雄*

• 目 次 •

I. 序 - 이퇴계 연구회 설립의 취지	III. 著書
II. 이퇴계의 생애와 사상	IV. 日本 儒學의 발전과 李退溪
1. 略傳	V. 佐藤直方派의 李退溪 尊信
2. 사람됨과 생활태도	VI. 李退溪의 철학적 수양론과 日本 儒學
3. 詩文·書法	
4. 退溪學의 성격과 역사적 지위	

V. 佐藤直方派의 李退溪 尊信

1. 머리말

日本の 고대문화는 朝鮮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高松塚古墳의 발견 이래 특히 상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실은 德川시대 초기의 문화도 朝鮮을 떠나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주로 유교문화의 측면에 대해서이기는 하나, 나는 일찍이 『日本朱子學と朝鮮』¹⁾이라는 하나의 책을 저술하여 어느 정도 이것을 밝혔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것을 증보하여 일부 정정하는 의미로, 佐藤直方 및 그 학파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李退溪를 尊信하였는가 하는 것을

* 전 東京大 교수(작고)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24호(1979) 게재논문

1) 昭和 40년(1965년), 東京大學出版會刊.

대략 서술하기로 한다.

朝鮮 제일의 儒者라 일컬어지는 李退溪의 저술은 일찍부터 근대유학의 開祖인 藤原惺窩나 林羅山에 읽히어 평가되었는데 李退溪의 학문 인격의 전체에 대하여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학문사상의 철학적 기초에까지 거두어 들인 것은 다름아닌 山崎闇齋이었다. 이 闇齋의 철학적 측면을 계승하여 더욱이 이것을 깊이 파고들어 가장 李退溪를 尊信한 것이 崎門三傑의 한 사람인 佐藤直方(1650~1719)이다. 또 崎門學派는 아니지만 아마도 闇齋나 直方の 학풍을 望見하여 독자적인 입장에서 李退溪의 학문에 공명하여 이것을 尊信한 것이 熊本の 大塚退野였다. 이 佐藤直方과 大塚退野이 日本에서 가장 李退溪에 傾倒하고 尊信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稻葉默齋

大塚退野의 학문이 幕末明治에 横井小楠, 元田永孚 등의 英傑을 통하여 드디어 明治의 교육방침 확립에까지 깊은 관련을 가졌던 일에 대하여는 前章 「日本儒學의 발전과 李退溪」에서 서술한 바이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佐藤直方の 학과에 대하여 보충하는 서술을 하려고 하는데, 실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稻葉默齋의 강의를 필록한 「訓門人 開卷講義·朱書節要開卷大意」²⁾라고 하는 한 책의 사본을 통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보면 佐藤直方の 문하에서 李退溪의

2) 東京無窮會圖書館藏. 「訓門人開卷講義」에는 寬政 元年 8월, 鶴澤恭節의 訓門人開卷講義序, 諸老先生訓門人會約, 篠原惟秀의 강의필록, 鶴澤恭節의 識語 및 篠原惟秀의 跋이 수록되어 있다. 默齋가 從姪, 狂郎君을 위해 강의한 것을 惟秀가 筆錄한 것이다. 또 「節要開卷大意」에는 寬政 2년 정월 篠原惟秀의 序, 諸先生朱書節要課會之規, 講義筆錄 및 부록으로서 元文 戊午 10월, 稻葉迂齋與或人談之說, 榎正固, 學思筆記와 享保 戊戌 三宅尙齋의 批, 그리고 稻葉默齋의 識語, 寬政 庚戌 정월, 化澤文의 節要開卷大意跋이 수록되어 있다. 講義의 필록자는 花澤文이다. 無窮會에는 二本이 소장되어 있는데, 副館長 市川任三박사의 특별한 厚意에 의하여 그 중의 하나(文政 13년 島篤信寫)를 제록스할 수 있었다.

저술 『朱子書節要』를 읽는 일종의 수양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그 규약이 매우 흥미있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좌등과에서 왜 것처럼 李退溪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佐藤直方 再傳의 문인 稻葉默齋의 묘소가 있는 千葉縣 成東市 元倡寺에서 默齋을 제사하는 默齋忌와 佐藤直方の 冬至文을 읽는 冬至會가 戰前戰後를 통하여 줄곧 170여 년간 행하여지고, 『朱子書節要』를 읽는 節要會도 昭和 10년(1935)경까지 행하여 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으므로³⁾ 이 기회에 佐藤派을 통하여 어떻게 李退溪의 이름이 日本에 살아서 이어져 왔는가 하는 사실까지도 소개하려고 생각하는 바이다. 稻葉默齋의 학파는 千葉縣, 東金, 大網白里의 99里濱 일대에 전승되었다. 이것을 上總道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맨 먼저 上總道學에 대하여 극히 간단한 개략을 소개하여 두기로 한다.

上總道學

山崎闇齋에게는 가장 뛰어난 세 사람의 문인이 있었다. 佐藤直方, 淺見綱齋, 三宅尙齋의 이른바 崎門三傑이다. 각각 기질과 주장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直方은 가장 철학적 사변적이었다고 한다. 直方の 학문을 가장 깊이 계승하고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稻葉迂齋(1684~1760)이다. 迂齋는 이름은 正義, 통칭 十佐衛門, 江戸 사람이다. 처음에 三宅尙齋에게 배우고 끝내는 佐藤直方에게 師事하고, 또 淺見綱齋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다. 唐津藩에 벼슬하여 교관이 되고 伴讀이 되어 學政과 교육에 진력하고, 土浦, 長崎, 新發田의 諸侯도 제자의 예를 취하고 館林, 筑前, 秋田, 阿波, 龜田, 岩村, 大多喜의 제후도 모두 賓禮로서 대우하였다고 한다.

稻葉默齋(1731~1799)는 迂齋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학문을 잘 계승하고, 山崎氏의 遺事, 遺業을 후세에 전하여 또 실제에 있어서의

3) 默齋忌(11월 25일), 동지회(동지일)는 지금 梅澤芳男氏가 중심이 되어 默齋門流의 연고자, 시의 교육관계의 직원 등이 모여서 행하여지고 있다.

上總道學의 祖가 되었다. 이 稻葉父子와 上總의 結부는 佐藤直方의 문인 酒井修敬의 中間역할에 힘입어 시작되었다. 修敬은 막부의 代官으로서 成東의 大橋修理로 왔을 때, 이 지방의 농가나 의사의 好學의 자제에게 江戸에 나와 稻葉迂齋의 문인이 될 것을 권하였다. 그래서 이 지방으로부터 많은 호학의 인사가 迂齋의 문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뒤에 上總八子로 불리운 사람들로서 귀향하여 塾같은 것들을 열어 지방교육문화의 개발에 當하였다.

그런데 稻葉默齋는 만년에 이 上總八子를 의뢰하여 上總으로 와서 清名幸谷에 孤松庵을 짓고서 오로지 저술과 문인교육에 當하였다. 默齋는 당시 江戸에서는 유명하여 문인도 많았고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大名도 적지 않았으나 단호히 그것을 물리치고 시골 구석에 틀어박혔는데 그것은 오로지 저술을 통해 崎門의 학풍을 후세에 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50세로부터 歿年인 68세까지 근 20년간 이 땅에 머물렀으며 그사이 부득이 大名에게 불리워 단기간 江戸에 나온 것은 겨우 4회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四書或問抄略』(館林藩刊), 『先達遺事』, 『墨水一滴』, 『吾學源流』(以上 『日本儒林叢書』에 收載)를 저술한 외에 佐藤直方の 전집 『韞藏錄』 71권, 『迂齋全書』 75권을 편찬하고 또 자기의 『孤松全稿』 68권을 편술하였다. 『韞藏錄』 이외에는 대부분은 未刊으로 사본인 채로 전하여지고 있는데, 평이한 이야기 말(國語)로 설명되고 있어 도리어 재미있으며 사상사 자료로서나 국어학 자료로서도 금후 주목되어 좋을 것이다.

그런데 默齋의 학문의 직계는 武州忍藩의 奧平棲遲庵(1769~1850), 그리고 伊豫松山藩의 三上是庵(1818~1876), 다음으로는 明治시대의 石井周庵(1835~1903)에 전하여지고 그것으로 끊기고 말았다고 한다. 周庵은 明治 16년에 도학협회를 만들어 쇠퇴해가는 崎門의 학자를 규합하고, 또 崎門의 선배의 유서를 顯彰할 것을 목적으로 「道學協會雜誌」를 발간하였다. 이것은 23년 1월까지 73회 계속되었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어 明治 30년 11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대가 내려와

昭和 12년으로부터 18년에 걸쳐 『山崎闇齋全集』, 『佐藤直方全集』, 『山崎闇齋와 그 門流』의 三書가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石井周庵의 제자의 제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佐藤直方の 계통에는 淺見綱齋의 門流처럼 역사상에 화려하게 활약한 勤皇의 志士나 사상가는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나 默齋를 비롯하여 그 계통의 사람들은 바야흐로 끊기어 버리려는 崎門의 학문유풍을 선배의 저술을 편찬하는 것에 의해 후세에 전하려고 노력한 흔적의 현저한 것이 있다고 인정된다. 물론 佐藤派의 학문은 新發田溝口藩을 비롯하여 館林, 松山 등 지방의 藩校에 커다란 영향을 남기고 또 稻葉迂齋의 문인 村士玉水の 문하에 岡田寒泉, 服部栗齋가 나타나 寬政異學의 禁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등 헤아리자면 몇 가지의 일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선배의 유풍을 견실하게 지키고 遺著를 모아 이 것을 편집하려고 한 것도 하나의 특색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上總의 땅에는 지금까지도 默齋忌, 동지회가 행하여지고 많은 유저를 지켜 전하고 있는 것도 그 표현이라 일컬어져 교육계에 선전되고 있는 것도 默齋의 유풍과 결코 무관계하지는 않을 것이다.⁴⁾

2. 佐藤直方과 李退溪

佐藤直方

이제 다음에 佐藤直方, 稻葉迂齋, 稻葉默齋이 특별히 李退溪를 尊信한 사례 및 그 이유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直方은 備後福山 사람이다. 22세 때에 闇齋의 문인이 될 수 있었다. 「승려의 究極의 뜻은 成佛에 있다. 聖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는 데에 있다. 결코 해박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입문이 허락되어 오로지 「小學, 四書, 近思錄을 정독하여 실용에 供하려는」 것이 그 뜻이었다. 그리하여 깊이 도리의 구명과 철학적 사변에 마음을 침잠시켜 理氣의 철학, 「無

4) 上總道學, 稻葉迂齋, 默齋 및 그 門流 등에 대하여는 「增補 山崎闇齋와 그 門流」(昭和 18년간)에 상세하다.

極而太極」의 해석에 대하여는 闇齋의 설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전하여지고 있다.⁵⁾ 또 淺見綱齋로 하여금 「도리를 아는 것이 直方과 같은 이가 천하에 없다」고 평하게 하고 있다. 闇齋이 易文言傳의 「敬以直內, 義以方外」를 확대 해석하여 敬義의 두 글자를 가지고 유학의 전체계를 모두 덮어버리려고 한 데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 것도 直方이며 드디어 경재와 함께 파문되기에 이르렀다. 直方은 그 스승 闇齋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으나 다만 그 敬義內外說과 神儒習습說만은 단호하게 따르지 않았다.

闇齋파에서는 道를 무엇보다 존중하므로 그 도를 전하는 스승도 존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하여 祿仕를 기꺼이 여기지 않았다. 直方도 大名의 신하가 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賓師로서 대우되었던 것이다. 다만 闇齋, 綱齋는 사제간을 군신간과 같이 엄숙하게 한 데 대하여 直方은 문인을 벗이라 불렀으며, 참으로 촉망한 사람 이외는 문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師傳과 門風을 준엄하게 하고 心術을 엄격하게 한 점은 다른 闇齋諸派에 떨어지지 않았다. 上總道學 등이 후세까지 남은 것도 그 특질은 여하간에 사전과 문풍을 엄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의 고하에 불구하고 도를 說하는 스승을 존중한다고 하는 「尊道重己」의 사상은 후세 藩校 등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直方の 李退溪에의 傾倒

直方은 快活洒脫하고 직관력이 풍부하고 통찰력이 날카로웠으며 변설에 가장 뛰어났다. 난해한 朱子의 철학을 평이한 이야기 말로 말하고 재미있으며 비유를 섞어 해명하는 것이 능하였다. 直方の 문인 菅野兼山이 大阪의 懷德堂보다 앞서 江戸에 會輔堂을 만들어 일찌감치 서민교육에 종사한 것도 直方の 일면의 학풍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直方이 삼걸 가운데서도 가장 깊이 李退溪에게 경도한 것은

5) 「甘雨亭叢書」의 佐藤直方傳, 또 「日本道學淵源錄」 참조.

다음의 말로서도 알 수 있으리라.

맹자 이후, 周程張朱가 그 정통을 얻었다. ……程子 문인에는 楊龜山, 謝上蔡, 呂與叔은 확실히 同座이다. ……朱門에서는 黃勉齋, 蔡九峰이 확실히 동좌이다. 그 밖에 문지방 곁에 가까이 간 것도 吳伯豐의 類 12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薛文淸은 眞儒로는 보이지만 볼 만한 점이 없는 것은 무어라 할 것인가. 이 밖에는 한 사람도 그 근처에 바랄 사람이 없다. 朝鮮의 李退溪는 확실히 동좌이다. 程門의 上座에 있을지도 모른다(中庸書說, 『佐藤直方全集』 45면).

元明間에 儒者로서 이름있는 사람은 枚擧할 수 없다. 그러나 그 聖學의 門牆을 엿보는 데 이르러서는 방효유, 薛文淸 겨우 이 두 사람을 볼 뿐이다. 朝鮮의 李退溪는 東夷의 座으로 중국의 도를 좋아하며 공맹을 존숭하고 정주를 宗旨로 한다. 그리하여 그 학식이 이른 곳은 크게 元明 諸儒의 정도가 아니다. (討論筆記, 佐藤直方全集 11면)

直方の 冬至文

더욱 주의할 것은 直方の 「冬至文」이다. 이 글은 그의 만년인 享保 丙申(1716)에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세 사람의 문인 鈴木正義(稻葉迂齋의 初名), 野田剛齋, 永井隱求에게 자기가 믿는 도의 학문의 究極의 목표를 보이고 그 뜻을 격려한 것이며, 이 학파에서는 그 뒤에까지 자못 중히 여겨진 것이다. 지금 村田義方刊本⁶⁾의 訓點에 의해 읽어 내려가면 다음과 같다.

6) 冬至文은 寬政 2年(1749)에 稻葉迂齋가 野田德勝, 永井隱求 및 자기의 문장을 부록으로 加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다시 稻葉迂齋가 天明 6년에 識語를 가하여 騰寫해서 門生에게 주었다. 村田義方刊本은 天保 甲午에 藤田重勝의 서를 머리에 싣고 간행한 것이다. 冬至文의 刊本에는 따로이 三上是庵의 松山版, 또 甘雨亭叢書本, 石井周庵寫本이 있다. 다만 甘雨亭本에는 冬至文이라 하지 않고 勵志라 표제하고 있다. 또 村田版을 新發田侯 溝口健齋가 사들여 題箋을 自署하고 발문을 만들어 見本印刷로 한 것을 梅澤芳男氏가 소장하고 있다.

道가 폐하여 행하여지지 않음이 擔物이 땅 위에 내버려져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사람이 그 때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깊어지어 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지금 聖學을 힘쓰는 자는 곧 擔夫이다. 속학의 徒는 길 가운데의 노는 사람일 뿐. 어찌 도를 깊어질 것을 족히 바랄 수 있을 것인가. 朝鮮 李退溪의 후로는 이 도를 負荷하고자 하는 자를 나는 아직 그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 중용의 序에 말하는, 우리 도가 붙어 있는 바가 언어 문자 사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함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도를 깊어지고자 하는 자 몇 명인가. 二三子는 뜻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과연 그 뜻이 있다면 등뼈를 곳곳이 세워 공맹을 배울 것을 원하여야 한다. 증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선비는 弘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仁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라야 그치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라고. 어찌 유유배회하며 세월을 마쳐 저 遊手浮浪의 徒와 伯仲이 되겠는가. 享保 丙申 동지일, 直方이 이를 써서 鈴木正義, 野田德勝, 永井行達에게 주어서 그 뜻을 격려한다.

즉, 仁으로써 자기의 임무로 하여, 孔子·朱子가 해명한 인류의 도—그것은 生生不已하는 우주의 생명력에 근거한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는 사랑의 마음에서 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것은 진실로 자기에 실현하는 실천학이야말로 도의 학이며, 세상에 유행하는 학문—俗學에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굳게 경계한 문장이다.

直方은 「소동파를 俗儒로 보는 견식이 없으면 성현의 지위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여 성학과 속학과를 준별해서 孔子나 朱子가 가르침을 세운 원점에 돌아가야 할 것을 高唱하였던 것이다. 생각컨대 直方이 활약하였던 元祿시대 전후에는 지식애호의 정신이 차차 고조되어 朱子學에 반대하는 伊藤仁齋의 古學이 유행하여 享保시대로 되어서는 학술과 도덕을 분리하여야 할 것을 주창하는 荻生徂徠의 학파가 대두하고 있었다. 또 같은 朱子學파에 있어서도 新井白石이나 具原益軒과 같은 넓은 학식을 가진 학자가 세상에 환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도리어 시대에 역행하여 무엇 때문의 학문인가, 무엇 때문의 교육인

가 하는 문제를 근본으로부터 엄격하게 따져 묻고 오랫동안 門風을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冬至文 가운데 가장 마음이 걸리는 것은 도를 임한 사람으로서 다만 한 사람 朝鮮의 李退溪의 이름만을 들고 그 스승인 山崎闇齋의 이름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山崎派에서 推重하는 明의 薛文淸까지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한 것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는 데는 前記의 稻葉默齋의 『訓門人開卷講義, 朱書節要開卷大意』라는 책이 있다. 이것을 읽으면 佐藤派에서 朱子語類 가운데의 「訓門人」과 李退溪의 『朱子書節要』를 특별히 중히 여겨 그 독서회 겸 수양회와 같은 것을 열고 있었던 것, 薛文淸보다도 더 나아가 山崎闇齋보다도 李退溪를 도학상의 모범으로 생각한 이유가 명백해지는 것이다.

3. 山崎闇齋의 朱子學 교육법

朱子學 교육법

도대체 한 마디로 朱子學이라고 하지만 朱子의 저술은 방대한 것이고 여기에도 元明시대의 해설서나 주석서를 가하면 汗牛充棟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님이 있으며 어디에 朱子의 중심사상이 있는지 용이하게 포착할 길이 없다. 그래서 山崎闇齋는 明曆 원년(1655) 처음으로 京都에 塾을 열었을 때 『小學』, 『近思錄』, 『四書』, 『易程傳』의 순으로 강의할 것을 정하였으나 그 후 『易程傳』 대신 朱子의 『周易本義』를 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 講書의 종류와 순서는 만년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인데 다만 때로 자기가 편찬한 저서를 그 사이에 섞는 일도 있었던 것 같다. 게다가 『小學』, 『近思錄』은 일체의 後世註釋書를 쓰지 않고 四書는 『大學章句』, 『大學或問』, 『論語集註』, 『孟子集註』, 『中庸章句』, 『中庸輯略』, 『中庸或問』을 朱子의 定本으로 하고 『四書大全』의 類를 末疏라 하여 취하지 아니 하고, 朱子의 『論孟或問』, 『論孟精義』까지도 朱子의 未定本이라 하여 취하지 아니 하였다. 또 주역도 『周易傳義』는 朱子의 本意를 혼란케 하는 것으로서 물리쳐 오로지 『周易本義』만을 강하였다. 즉 후

세의 주석서를 일체 배척하여 오로지 朱子의 원저에 대하여, 그것도 未定書는 물리치고 정설로 된 것만에 대하여 철저하게 강의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朱子의 사상의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는 『朱子文集』, 『朱子語類』를 정독하고 그 중의 주요한 문장을 表彰하여 한 책으로 한다고 하는 방침이었다. 闇齋의 저술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대개 이와 같은 表彰編纂의 책이다.

요컨대 闇齋이 세운 朱子學 교육법은 元明 이래로 자칫 번잡화되거나 혹은 혼란되어 온 朱子의 저술을 복구하고 간소화하여 朱子가 정한 원저에 대하여 정밀하게 그 사상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었다. 林羅山, 鵞峯이 明이나 朝鮮의 관학에 모방하여 『四書大全』, 『五經大全』을 중히 여기고 여기에다 史書, 諸子百家, 詩文, 和學까지도 널리 배우게 하는 방침을 취한 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덧붙여 말하면, 具原益軒을 『近思錄』을 日本에서 최초로 강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설이 있으나 이것은 물론 잘못이다. 아마도 『小學』, 『近思錄』, 『四書』라고 하는 순서에 따라 강연을 연 闇齋이 최초일 것이다.

佐藤直方の 간략화

그런데 直方은 이와 같은 闇齋의 설을 다시 간략하게 해서 『大學』의 八條目과 『近思錄』 14편이야말로 도학의 「꼭 붙잡아야 할 자리」로 삼고 더 나아가 그 위에 또 더 여기서부터라고 하는 꼭 붙잡아야 할 자리로서 『朱子語類』 중의 訓門人(어류 113권~121권)과 李退溪의 『朱子書節要』를 들었다. 이에 대하여는 稻葉默齋가,

吾黨의 학문의 꼭 붙잡아야 할 자리는 대학의 팔조목, 近思錄의 14편이다. 이때 그 위에 또 더 여기서부터 라고 하는 꼭 붙잡아야 할 자리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直方선생의 높은 견식으로 정도 높은 李退溪를 붙잡았으니, 그것이 直方선생의 취향이다. 그 까닭에 吾黨은 그곳에 상당히 취향이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와서 학문을 하되 그 취향을 把持處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朱書節要 開卷

大意)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다. 直方の 학과에서는 『訓門人』, 『朱子書節要』를 가지고 도학의 끝맺음이자 요약의 책이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문과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색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訓門人』과 『朱子書節要』를 推重한 것은 山崎闇齋의 說에 근거한다. 즉 闇齋는 「朱子書節要, 李退溪의 평생의 정력이 모두 여기에 있다. (『文會筆錄』 20), 「朱書を 抄出하는 자 많으나 아직 퇴계의 절요만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文會筆錄 17)라고 하고 있다. 또 直方の 초년의 스승이고 直方을 闇齋에 소개한 福山の 永田養庵이 그 향리로 돌아갈 때 闇齋에게 향하여 어느 책을 읽어야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闇齋는 「訓門人, 訓門人」이라 답하여 養庵은 전심하여 이것을 읽어 여기에서 크게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吾學源流』에 실려 있다. 그러나 『訓門人』과 『朱子書節要』의 二書を 특히 존중하여 끝맺음의 책으로 삼은 것은 佐藤直方에 시작한다. 이래로 直方の 학과에서는 이 두 책을 「要約의 書」로 할 뿐만이 아니고 항상 일과처럼 읽는 집회가 후세에까지 존속하였던 것 같다. 三上是庵의 小川眞砂에도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節要, 訓門人の 二書는 선배들은 일과처럼 여겨서 끊임없이 돌아가며 循環觀玩하였다고 한다. 이는 佐藤子 이래 門風の 誘導로 되었다. 右의 諸老會約의 規를 볼지어다. 절요는 서문과 권말부록의 答李仲久와를 절요를 읽는 規로 하여 朔望에는 반드시 이 둘을 아울러 읽는 約定이 보이고 있다.

朱書節要 課會之規

그런데 이 諸先生 朱書節要 課會之規와 諸老先生 訓門人會約이 『訓門人開卷講義, 朱書節要開卷大意』 가운데 수록되어 있고 매우 흥미깊은 것으로 아래에 그 전문을 句讀點을 찍어서 신는다. 다만 주서절요과회 지규 쪽은 自家流의 초서체의 「가나(假名)書」이기 때문에 山岸德平 박

사의 교시를 얻었으나 그래도 두세 군데 관독이 어려운 문자도 있어 그 글자에는 의문사를 붙인 채 내어놓기로 한다.

諸先生朱書節要課會之規

一, 會日, 毎月兩度相極ル事.

一, 先輩一人, 可爲會正事.

一, 集會の面面, 四ツ時相集り七ツ時可能歸事. 但, 用事有之の人は此限
あらず.

一, 少少の用事は隨分相延可罷出, 若無據用事あらば 會主へ其斷可申達
事. 但, 病氣無據用事の外, 不參三度 及候へば, 會主申立, 連衆を可除
事.

一, 食事は各可致持參候. 并酒を不可致事.

一, 會ニ入る人は節要毎日致熟讀, 或は一條, 或は一枚, 會の節, 各熟讀
の時不審有之候處, 致講習討論, 其已後は他書の不審ヲ讀申候共, 書を讀
候とも, 學談致候とも, 致靜坐候共, 勝手次第可致く候. 一朋友講會の間,
徳性薰陶する道專一二候. 無益の雜談堅禁止すべし. 歸りの刻會主節參
(即參?)次第, 不殘座ニ連り會主へ一禮申可歸事.

一, 毎日早朝に起, 手水髮月代を詰, 几案を掃除し危坐して可對節要事.

一, 序文并卷末書翰を以, 讀之規矩ニ立, 爲己之道不可妄. 説を以解,(ヨ
ロコビ?)人の耳目を説すの道, 嚴度可斷絶事.

一, 朔望には袴を着し節要可讀事. 附り, 此兩日は序文, 答李仲久書を扁
(徧?)可兼讀.

一, 會の連衆は相互ニ無仕義(儀?)可規諫. 小事は書付を以可諫, 大事は
可面責事. 但, 責三度ニ及び不悛人は會主へ申立, 可除連衆事右此會ニ連
り候人, 實に經學を勤メ虚偽利名を斷絶し, 孔孟程朱の爲に何とぞ此, 道
を明にせんと思ふべし. 若し不行跡の事有之, 假令人不知とも, 此會ニ連
り何んの面目有て連衆の諸賢に對せんや. 若し人其不行跡を知らば, 孔孟
を學ぶ人, 如何たれば程朱之學も無益の事たりと申立候(脱字?). 人は甚
々道の害にして實天地孔孟程朱の罪人, 此會ニ連る諸賢の爲にも亦罪人
にして, 諸賢亦甚無面目事也. 此言能能可相守, 此會に連る此道をよく 合
點あり, 心に如在(才?)たきとも嫌疑之間此連衆の爲にも可相愼也.

享保庚子(五年)七月七日

鈴木十左衛門 野田七右衛門

諸老先生訓門人會約

- 一, 每月 4日19日. 但直日有故, 制定一日, 必充二會之數, 不可少一矣.
 - 一, 先輩一人爲會正.
 - 一, 集會者已時至, 脯乃退. 既集, 以入會之次爲序就坐拜會正. 退時亦拜如初. 但有故者, 雖會未既, 告會正許退.
 - 一, 有故不至會者, 以其事可告會正. 但無故而三不至者, 告會正出約.
 - 一, 饋餉各自裹之. 酒肴之類不可具. 但會之初及終, 并歲首歲暮, 許酒三行. 主宣設許之.
 - 一, 入會者, 訓門人日熟讀 一二條或 一二版 集會の日, 質疑講習討論, 必究于一矣. 朋友講習之間, 薰陶德性之意不可忘矣. 無用之雜言不可發.
 - 一, 每日夙起盥漱束髮, 拂掛几案, 危坐可讀此.
 - 一, 歲首歲末之會, 乃初會終會, 可着上下. 但朔望着袴可對書.
 - 一, 同約之互傾倒, 而可規過失. 小則以書譙責之, 大則可面責之. 但三責而不悛者, 告會正聽其出約.
- 凡聖賢出世, 生時教人, 不過三五十年. 而其教訓嘉言, 布在方策者, 則又萬世之遠, 極天無墮. 假令聖賢存于今, 蓋亦不過以此言教之, 則奉而讀之, 同堂面命豈有異乎. 然其書雖存, 或不能讀, 雖讀無得之己, 則雖與聖人同居, 不能化而入矣. 吾人既得讀之何幸如之. 其得不得之己, 則吾人正在自己立心之實不實. 求古人之所至, 務古人之所爲, 不貪利祿而貪道義, 勇猛奮躍, 切己之功夫, 不可少間斷矣. 若游戲怠慢無行實, 雖令他人不知之, 何有顏面對同約諸賢乎. 且知其無行狀, 人將謂程朱之學徒如此, 其道何足以學. 是則得罪於往聖之甚者, 而爲同約諸賢亦罪人也. 而諸賢亦可得其辱矣. 各宜謹守之, 雖嫌疑之間不加忽. 因要約如此云.
- 享保 17年 壬子 7月 4日

이렇게 두 개의 집회의 규약을 나란히 놓고 볼 때 두 가지의 것이 거의 같은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 朱書節要課會之規 쪽은 佐藤直方の 몰후 1년 만에 만들어져 鈴木十右衛門, 즉 稻葉迂齋가 아마도 會主가 되어 同志 7인으로 시작되었던 것도 알 수가 있다. 단순한 독서회는 아니고 매일 아침 早朝에 일어나 엄숙한 기분으로 절요를 1條 혹은 1枚 읽고, 월 2회의 집회에 의문을 가지고 와서 논의한

다든가 취득한 바를 서로 이야기 나눈다든가 하는 습였다. 특히 1일과 15일에는 威儀를 바르고 李退溪의 서문과 권말의 李退溪가 文人 이충구에게 답한 서한을 읽어 朱子서를 읽는 기준으로 하였던 것은 주의하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다만 책을 함께 읽을 뿐만이 아니고 서로 과실을 간하고자 하는 수양의 습로 하고 있는 점은 이 학파의 학풍을 알기에 족한 것으로서 이 규약을 잘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사람으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이 있다.

『朱子書節要』는 朱子の 편지 가운데에서 약 3분의 1을 뽑아내어 이것을 분류하고 略注를 가한 것으로 李退溪의 自序와 答李仲久書에는 이 책의 편찬 취지만이 아니고 朱子の 근본사상의 핵심이 언급되고 있다. 三上是庵이

그윽히 생각컨대 右의 들은 절요를 읽는 規가 될 뿐만이 아니고, 늘 玩誦하게 되면 저 손잡이도 없는 것과 같은 곳으로부터 저절로 들어갈 곳의 손잡이를 얻어 朱門의 대규모, 嚴心法의 취향, 退溪願慕興起의 誘導에 있어 아마도 따로이 일반친절한 뜻을 領會하는 바 있어 두루 聖經賢傳을 읽는 데 있어서의 指南이 되기에 가까울 것이다. (芳賀觀齋著『道學讀書要覽』引『小川眞砂』)

라고 하여 이것을 賞讚하고 있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말하면 『朱子書節要』는 이미 明曆 2년, 寬文 11년, 寶永 6년에 刊刻되어 있어 稻葉默齋 등이 이것을 입수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訓門人和 節要의 課會의 규약은 直方의 몰후에 정해진 것이기는 하나 적어도 訓門人의 회합 그 자체는 直方의 생전으로부터 베풀어져 있었다. 즉 『訓門人 개권강의』의 序에 「迂齋선생曰, 享保 丁酉 2년(1717)의 가을 佐藤선생이 德勝, 行達, 正義로 하여금 訓門人을 읽게 하시니 어찌 그 뜻이 없으셨겠는가.」라고 있는 것에 의하면 저 冬至文을 3인의 문인에게 준 다음 해에 같은 3인에게 이 訓門人을 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 直方이 訓門人의 습에 출석하여 한마디의 말도 발언하지 않았다

는 이야기도 『墨水一滴』 속에 기록되어 있다.

요컨대 默齋의 말을 빌리면 「朱子の 가까이에 가게 되고, 「朱子の 직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訓門人과 절요의 會讚이 행하여지고 서로 절차탁마하였던 것이다. 「四書의 註로도 朱子學은 얻어지지만 절요, 訓門人을 알지 못하는 대단치 않은 朱子學이다.」라는 생각이었다. 사람에는 기질, 성격, 교양의 相違가 있다. 따라서 그 상위에 의하여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있다. 그 교육법, 기질변화의 법이 訓門人과 절요에 가장 잘 표시되어 있고 이것을 熟讀體味하면 朱子에게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특히 訓門人은 「강론이 충분한 경지에까지는 缺하였다 하더라도 語意氣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할 수 없는 妙境」이 있으므로 절요쪽이 「訓門人보다는 高大」하지만 「직접으로 朱子에 가까이 가는 데는 어쨌든 訓門人이니라」라고 하였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 두 책에 의해서 ‘朱子の 직제자’가 되고 자기의 기질을 변화하여 일보일보 성현의 지위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학파의 목표였다.

4. 冬至文에 李退溪 한 사람의 이름을 들다.

闇齋의 神道說에 만족 않는 直方

그런데 다음에는 佐藤直方이 그 冬至文 속에서 왜 그 스승인 山崎闇齋의 이름을 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直方이 闇齋의 神道說에 만족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것은 默齋이 「山崎선생의 학문은 朱子 그대로이기는 하나 神道에 익숙해 있는 점이 나쁘다.」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명쾌하지 못한 곳이 있으면 道統을 얻었다 하더라도 물어 들어온 물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듯 명쾌함에 어긋나면 모범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의해 분명하다. 默齋는 또한 다른 책에서,

心術의 비뚤어짐이 있으면 학업의 비뚤어짐이 되고 ……도학을 비뚤어짐없이 성취한 것은 朱子가 孔子 이래의 일인이다. 朱子の 학을 비뚤어

짐없이 信從하였음은 퇴계가 朱子 이래의 일인이므로 直方이 퇴계를 道任에 당하게 한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默齋全集拾遺』 乙卯冬至漫書)

朝鮮의 李退溪는 朱子의 도통이다. 朱子의 訓에 오로지 따라 조금도 朱子의 규모범위를 넘지 않았다. (『孤松全稿』)

라고도 하고 있다. 直方이나 그의 학파에서는 闇齋를 「日本 正學의 祖」로 존송하기는 하나 그 神儒習습한 점에는 자못 불만을 표명하고, 孔子·朱子의 도통을 비뚤어짐없이 성취한 모범으로서는 오히려 李退溪를 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朱子, 李退溪의 도통을 계승하는 것이 이 파의 목표였다고 하여도 좋다.

李退溪 敎學의 眞味

그러면 어찌하여 明의 薛文淸(名은 瑄, 1389~1464)보다도 李退溪를 높이 평가하였는가.

自宋而下 ……朱子의 연원을 찾은 사람은 薛文淸, 李退溪이다. 이 밖에 도통의 傳을 얻은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되 이제부터 李退溪에 관한 부분이 중대한 傳授事이다. 薛文淸도 朱子의 학은 매우 잘 얻었으나 薛文淸은 견식이 높은 사람, 李退溪는 특별한 것이 없는 학문이지만 여기가 李退溪가 도를 얻은 것의 平實한 곳이자 妙處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薛文淸보다 李退溪의 격식이 올라간다. 이제 읽어 볼지어다. 독서론은 이미 있고 『自省錄』은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불 만한 점이 있는 것이다. (『朱書節要開卷大意』 下同)

즉 李退溪는 평상의 말을 말하고 평상의 行을 말하면서 그 속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묘처가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격식이 위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기를 또한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薛文淸이 그 정도로 견식이 높다 하더라도 벽에 부딪쳐 있다. 어지간히 학문은 좋지만 그것 뿐이다. 李退溪는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학문이란 것은 성인을 배우는 것이므로 성인이 되기 전에는 길 가운데의 한 복판이다. 일찍이 선생의 명성을 얻는 것은 쓸모가 없다. 李退溪는 朱子를 표적으로 삼아 평생을 가랑이를 끌고 달려 돌아다닌 사람이므로 학문에 나이가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다면 죽은 朱子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을 孔門에 끌어대어 말하면 薛文淸은 증자와 같은 사람, 李退溪는 안자와 같은 사람이다. 안자는 孔子에 좇아 붙지는 못하였으나 거의 孔子에 좇아 붙게 되어서 죽었으며, 퇴계는 70에 죽었으나 자리에 앉지 않은 바가 그 어느 쪽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도 말을 조금 붙여 한다면 李退溪는 보행하면서 죽었으며, 薛文淸은 앉아서 죽은 것과 같다. 앉은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어나 있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좋다.

즉 李退溪는 孔門의 顏淵에 비교하여 죽을 때까지 성인에 좇아 붙으려고 하여 쉬지 않았던 점을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표적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李退溪는 학문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論語의 「선생님께서 顏淵와 평하여 말하기를, ‘애석하구나.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았지’ 아직 그가 멈추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두고서 한 말이다. 또한 直方이 迂齋에게 「薛文淸은 할머니가 차를 끓이는 것과 같고 李退溪는 처녀가 차를 끓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아마도 李退溪가 멈춤이 없이 항상 나가기를 계속한 것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述한 것일 것이다. 어쨌든 上記와 같은 李退溪관은 학문, 즉 수양이라고 생각하는 佐藤派이 아니고서는 쉽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문의 순수도를 평가

또한 稻葉迂齋는, 佐藤直方이 李退溪를 尊信한 데 대하여 三宅尙齋이 薛文淸을 尊信한 점을 지적하여,

尙翁의 견해가 佐藤子에 미치지 못하는 所以는 李退溪를 아는 것이 알기 때문이다. 亡友 村士行藏이 李退溪를 尊信하였다. 이는 그 자질의

가까운 바일 뿐이다. 행장으로 하여금 佐藤子の 기상과 같게 한다면 아마도 반드시 퇴계를 尊信치 않았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본다면 상옹의 평범으로 퇴계를 보고 좌등자의 평범으로 薛文淸을 봄에 二子の 도학의 역량이 이와 같다. (『吾學源流』)

라고 하고 또,

佐藤子が 가장 李退溪를 믿어 귀의로 삼았다. 이 그 견해는 尙翁이라 할지라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同上)

라고 하고 있다. 三宅尙齋는, 그 도학의 역량에 있어 見識에 있어 佐藤直方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결국 李退溪를 아는 것이 알기 때문이라고 하고 자질에 말미암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村土行藏이라 함은 저 『李退溪書抄』 10권의 편저자 村土玉水를 말하는 것으로, 그는 처음에 山宮雪樓, 中村蘭林에 從學하였는데 뒤에 稻葉迂齋에 나아가 『朱子書節要』를 강구하여 크게 그 학문이 진보되었다고 일컬어진다. 默齋는 그것을 술하여,

대저 사람들이 朱子學의 全備로 삼는 자는 대부분 이 呂東萊 정도의 학문일 따름이다. 처음에 村土行藏이 설루와 난림에게 종학하였다가 뒤에 비로소 濱港에 취학하였다. 내가 처음에 그와 이 취향을 설파하였다. 그의 학문이 크게 나아간 바의 것은 바로 『朱子書節要』의 강구에 있다. 그의 문인이 지금 아마도 있을 것인데 이 뜻을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吾學源流』)

라고 하고 있다. 자칫 사람들은 지식 학문의 廣狹, 분량의 多寡로 학자를 평가하기를 좋아하나 「크기나 높이로 보면 학문이 道具마련이 된다.」 어디까지나 「학문의 힘줄」·「취향」, 이른바 정통성, 순수도야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派의 주장이었다. 李退溪를 높이 평가한 것도 이같은 관점에서이다. 「크기나 높이로 생각하면 李退溪 등은 좋게

는 생각되지 않을 것」일텐데 「그 李退溪를 直方선생이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보통 눈이 높은 것이 아니다. ……이곳을 특별히 吾黨의 諸賢들은 秘義하여야만 할 일이다.」라고 默齋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佐藤派에서는 李退溪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朱子學과는 물론 三宅派, 淺見派와도 구별되는 분기점으로 하였던 것 같다. 「도를 보는 눈이 어두운 까닭으로 李退溪 같은 사람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실상이고 「그 명백한 사실로는 학문의 취향을 알지 못하고 또한 把持處를 알지 못하는 데 귀착하는 것이라는 것」이 默齋의 생각이었다.

또한 默齋는 특히 李退溪의 『朱子書節要』를 존중하는 이유로서 이것을 읽더라도 「義理로 초빙하겠다고 말하는 大名도 없고,」 따라서 명리 때문에 뜻을 빼앗길 일이 없어, 도리어 참으로 도의 학에 정진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論語는 옥과 같은 책이다. 朱子의 쓰는 엄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뜻이 論語와 같다. 그 위에 취할 점이 있는 것은 朱書에서는 전혀 이익에 유인되지 않는다. 오늘날 日本에서는 李退溪를 아는 사람도 없다. 우리 학문의 줄기에 눈이 밝지 못한 儒者 등은 節要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보배처럼 여기는 字典인가 하고 생각한다. 선생이 微笑하여 말하기를 그 위에 朝鮮이라 하고 李退溪라고 말하나 대단한 것으로 보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익 때문에 誘奪되는 등의 해가 없다. 여기가 成佛의 手順學者의 가장 중요한 곳이다. (『朱書節要開卷大意』 下同)

이리하여 默齋의 생각으로는 孔子를 배우고 道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朱子를 배우는 것이 좋고 朱子를 배우려고 한다면 李退溪의 引導에 말미암는 것이 파지처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某는 일찍이 생각컨대, 孔子를 배운다고 하기보다 朱子를 배운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학문에 파지처가 되어 있다. 그것이 불 만한 점이다. 그러면 朱子學의 경우 朱子를 배운다고 말한다면 李退溪의 인도로, 라고

하는 것이 파지처로 되는 것이다. 여기가 某의 오늘의 발명이다.

어디까지나 李退溪의 인도로 반드시 가는 것이 좋다.

철요를 읽고 각별히 도움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李退溪으로부터 술잔을 칭해 받는 것이다. 孔子의 도라고 말하기보다는 朱子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朱子라고 말하기보다는 李退溪의 傳이라고 말하는 것이 친절하다.

직접으로는 李退溪를 스승으로 하여 그 인도에 의해서 朱子를 배우고 孔子를 배우려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 명백하게 말하여지고 있다. 李退溪는 日本에 있어 다시 더 없는 知己를 얻은 것이다.

5. 기질변화의 修養學

聖賢에 접근하는 실천학

유래로 朱子學派는, 朱子學을 어떠한 학문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대별하면 두 파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朱子學을 만사만물의 조리법칙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공리학이라고 이해하는 일파이고, 하나는 朱子學을 마음의 수양을 주로 하여 聖賢에 접근하는 실천학이라고 이해하는 일파이다. 명의 薛文濤, 朝鮮의 李退溪, 日本의 山崎闇齋는 후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稻葉默齋는,

聖賢의 千言萬語가 각양각색으로 많지만 결국은 기질변화의 학이다. 지금까지의 일을 조금씩 고쳐서 기질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로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안으로부터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山崎闇齋가,

그 학문의 도는 致知力행의 두 가지에 있다. 그리고 存養은 그 두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다. 漢唐의 사이에 知者가 없는 것은 아니고 行者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직 일찌기 存養의 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는 바의 分域과 행하는 바의 기상이 마침내 성인의 도가 아닌 것

이다. (『近思錄序』)

라고 한 말은 다른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行住坐臥, 삼가는 마음을 가지고 知와 行을 단련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 기질을 변혁하고 한걸음 한걸음 聖賢의 지위에 접근해가는 것이 이 학파의 목표이고 그 학문관이였다. 일시적으로 금욕하는 것은 아니고 「극기는 아니고 거치른 것은 아니고」 또 단순히 教條를 「여러 가지로 지키」는 것은 아니고, 물이 물건을 적시듯이 『涵養』하고 『存養』하여 마음을 변혁해 가는, 그것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日本에서는 사회경제의 안정에 수반하여 元祿의 전후로부터 지식애호의 風尙이 차차 일어나 학계도 교육계도 新奇를 좋아하고 異說을 세우는 풍조가 성해지고, 荻生徂徠에 미쳐서는 학술과 도덕을 완전히 분리하여 학술은 도덕수양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학문관이 성립하였다. 이와 같은 시세에 山崎闇齋와 그 門流는 어디까지나 학문교육의 第一義는 마음을 存養하여 자기완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을 주장하여 그 학맥과 문풍을 엄수하고 평이한 이야기 말에 의한 실천학 수양학으로서의 윤리운동을 계속하여 왔다. 게다가 이들 사람들, 그 중에서도 佐藤直方派에서는 朝鮮의 李退溪를 도를 짚어진 모범, 즉 도학중흥의 祖로서 尊信하였다고 하는 것은 日本윤리사상사 상, 특히 朝鮮과 日本의 사상교류사 상에서 보아 주의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VI. 李退溪의 철학적 修養學과 日本儒學

머리말

1976년 5월 18일부터 3일간 國立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주최로 「退溪思想研究 國際學術大會」가 열렸다. 문화공보부, 한국문화예술킨흥원,

경상북도 퇴계학연구원의 네 단체의 후원이다. 주제는 「현대에 있어서의 퇴계학의 재인식」이라는 것으로, 제 1일 오전은 安岡正篤씨의 특별강연, 오후는 基調講演으로서 중국 錢穆 박사의 「현대 對 退溪學之再認識」, 日本 阿部の 「李退溪의 철학적 수양법과 日本유학」, 한국 韓明洙 박사의 「李退溪의 철학사상」이 있었으며, 제 2일째는 문학·교육·정치·철학의 네 분야로 나뉘어 각각 李家源, 渡邊學, 姜周鎭, 宋兢燮의 諸氏로부터 연구보고가 있었으며 질의응답이 있었다. 會衆은 대략 700명, 한국학 역사학의 제교수가 거의 회의장에 모였다고 한다. 제 3일째는 도산서원, 경주박물관의 참관이다.

이하는 그 때의 기조강연의 원고이다. 江戸시대 이래의 학자가 李退溪의 어떠한 주장에 공명하였는가, 또 현대적 의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구하여질 것인가 라는 것을 개설한 것이다.

日本과 朝鮮

日本の 문화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반도의 문화를 떠나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 그것은 高松塚古墳이나 武寧王陵의 발굴에 의하여, 또 한국미술 5천년 전의 전람에 의하여 더욱더 명료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日本 근세의 유교문화의 성립도 한반도의 유교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나는 10여년 전에 『日本朱子學と朝鮮』이라는 한 책을 저술하여 이것을 학술적으로 논증하였다. 또 작년은 德川時代에 출판된 李退溪의 저작 11종·전46권을 모아서 日本각판 『李退溪全集』 상하 2책을 출판하여, 李退溪가 德川時代 초부터 日本의 학자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절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德川時代에는 중국이나 朝鮮의 도서가 다수 출판되었던 것인데 아마 개인학자의 저술로서는 朱子에 이어 李退溪의 저서가 가장 많이 출판되었던 것이 아닌가고 상상하고 있다.

그런데 李退溪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도 많은 바이다. 日本의 학자가 李退溪의 어떠한 점에 마음이 끌렸는가, 그리고 그것이 日本의 사상

사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현대적인 의미를 갖느냐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하여 그 일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日本 근세유학과 李退溪

日本 근세유학의 開祖인 藤原惺窩나 林羅山이 다 같이 李退溪의 著인 『天命圖說』을 읽고서 理氣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즉 중세까지의 神佛본위의, 미래의 생활을 희구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一轉하여 현세의 질서를 주로하는 보다 더 합리적인 세계관을 세우는데 있어 적지 않은 學恩을 받았다고 하여도 좋다.

특히 藤原惺窩는 임란의 포로 姜沆을 스승으로 하고 벗으로 하여 처음으로 僧籍을 떠나 儒者로서 독립하고, 또 李退溪가 교정한 朱子の 『延平答問』을 숙독하여 心眼을 열어 이것을 朱子學의 秘傳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으로서 문인 林羅山에 전수하였다. 이렇게 볼 때 日本의 근세유학이 발흥한 것도 또 儒者라는 직업이 日本에 처음으로 생긴 것도 朝鮮의 유교의 영향에 의한 바가 많다.

그런데 다음에 나타난 山崎闇齋에 이르면, 平和通商에 의하여 얻은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감분흥기하여 학문교육의 있어야 할 모습에 대해 깊이 자득하여 그 때까지의 林羅山일파의 관학의 학풍과는 전혀 다른 도학을 창도하기에 이르렀다. 山崎闇齋의 학문의 근저는 李退溪의 학문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는 가설을 나는 세우고 있다. 李退溪의 전저술을 독파하고 그 학문과 인격의 전체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은 山崎闇齋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門流도 모두 李退溪를 존숭하고 그 중에서도 高弟인 佐藤直方の 일파는 특히 李退溪에 경도하여 그 유풍이 현대에까지 잔존하고 있다. 또 이 闇齋派와는 별도로 熊本에 大塚退野의 일파가 나타나 아마 闇齋派 이상으로 李退溪에 경도하였다. 그리고 그 문류에 横井小楠, 元田永孚가 나타나기에 미쳐 明治의 교육방침의 확립에까지 관계를 갖고 있다. 李退溪의 학문은 山崎闇齋, 佐藤直方, 大塚退野 등의 사상에 받아

들여져 그 두뇌를 통하여 日本의 사상계에 간접적이거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에 공감하였는가

그러면 日本의 儒者는 어떠한 점에 가장 공감하였는가. 그 하나는 李退溪가, 孔子나 朱子가 학문교육의 목표로 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격의 도야·인간 형성을 第一義로 하는 도학을 새로이 세운 것이고, 그 둘은 그 방법으로서 敬, 즉 삼감(愼)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시하여 敬에 의한 수양을 친절하게 說한 것이고, 셋은 안으로 고원한 철학을 비장하고 있으면서 일상비근한 생활의 장에 卽하여 생활경험을 통해서 착실하게 理를 궁구하고 행을 독실히 하여 知와 行을 단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역설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山崎闇齋가 33세 때 『自省錄』을 읽고 감분흥기한 것도 바로 이 점에 있으며, 朱子の 『白鹿洞學規』를 『大學』 이래의 중요한 문장이라고 表章하고 또 朱子の 『敬齋箴』을 표장해서 집주를 만들어 출판한 것도 李退溪의 설에 유발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朱子の 몰후에 朱子の 학문은 그 가장 싫어하였던 科擧利祿의 학문으로 되어 버리고 또 더욱이 煩鎖駁雜한 것이 되어서 朱子가 가르침을 세운 참 정신이나 朱子철학의 근본의가 자칫 상실되기 쉽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李退溪가 동방에 崛起하여 朱子の 참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여 도학을 再興한 것이라고 日本의 山崎派나 大塚派에서는 李退溪의 지위를 높이 평가하였다.

즉 山崎闇齋이 李退溪를 「朱子の 高弟에 다를 것이 없다」, 「朝鮮의 一人」으로 평가한 이래로 佐藤直方은 「그 학식의 이른 곳이 크게 元, 明諸儒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朝鮮의 李退溪의 뒤에는 그 도를 負荷하고자 하는 자를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佐藤派의 稻葉默齋는 「小成의 朱子」, 「朱子の 道統」, 「朱子 이래의 一人」이라고까지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橫井小楠은 元明 이래 「東西絶無의 眞儒」라고까지 말하고 楠本碩水도 「朱子 이래의 일인」이라

고 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居敬窮理의 인간탐구학

李退溪도 山崎闇齋도 이 道, 五倫五常의 도를 참으로 알고 실천하는 도학이야말로 올바른 학문이며, 한갓 지식만을 편중하는 세상의 학문을 속학이라고 하여 엄격하게 구별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유학의 목적은 수기치인에 있으며, 朱子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居敬과 窮理라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 그리하여 居敬과 窮理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하나를 폐하여도 아니 된다고 역설하였다.

居敬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빛나는 본성을 불려 일깨우기 위한 行적인 공부이고 그 착수처는 엄숙하게 외형을 정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身心을 긴장케 하고 정신을 사물에 集注해서 잘 때는 잘 때대로,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을 때대로, 일을 할 때에는 일을 할 때대로, 전정신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진실한 자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긴장의 연속이라는 것은 아니고 敬을 잊어 敬하지 않음이 없는 공부가 설명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어쨌든 항상 기거동작을 삼가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居敬인데, 李退溪는 특히 일상생활에 있어 외형을 정제엄숙히 하는 것을 본원의 마음을 기르는 묘결이라고 강조하여 居敬의 공부에 대해 간절하게 알기 쉽게 문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뿐이 아니고 敬이야말로 학문수양의 출발점이고 큰 근본이라고 하여 오히려 窮理보다 居敬을 중시하였다. 元明 이래 학문이나 교육이라 하면 자칫 책을 읽고 지식을 넓히는 것만을 의미하기 쉬웠는데, 李退溪에 있어서는 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아는 것 행하는 것의 근본으로 하여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물론 지식을 넓히는 것을 경시한 것은 아니다. 居敬과 함께 窮理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다만 그 窮理라는 것은 추상적 관념적으로 空理를 탐색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사물에 나아가 그 도리법칙을 엄밀하게 궁

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 의미에서 과학적 정신에 가까운 것인데, 다만 李退溪의 경우는 도덕의 근원으로서의 天理를 궁구하는 데에 한층 더 중점이 놓여지고 있다. 게다가 李退溪는 그 理를 궁구하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의 平實明白한 곳에 착수할 것을 가르쳐, 이른바 전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본래성과 그 우주적인 관계를 통찰하고 자득하여야만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독서窮理라고 하더라도 聖賢의 고전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마음의 절실한 문제로서 고인의 마음을 追체험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인격을 순수화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본래의 진실한 마음을 보는 눈을 길러 자기를 천성 그대로의 인간으로 접근시키려고 하여 理를 궁구하는 것이다. 「體察體味」 「切己近思」가 특히 도학과에서 강조된 것은 그 의미이다.

李退溪의 『自省錄』에 「涵養體察은 吾家の 宗旨」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요컨대 李退溪의 도학은 도의 眞知와 실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래성·진실한 마음을 탐구하는 인간탐구의 학이며 그것을 자기에게 실현하는 修養學이라고 할 수 있다

李退溪는 즐겨 「道の 眞知실천」이라고 하였는데 그 도는 일상의 오류의 도, 다섯 가지 인간관계의 도덕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도덕은 인간의 본래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본래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仁이며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 仁을 固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朱子는 인을 정의하여 「心之德 愛之理」라고 하였는데, 山崎闇齋의 高弟 淺見綱齋는 이것을 日本語로 번역하여 「마음 본래의 천성, 사랑하지 않고는 있지 못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있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진실의 마음이다. 게다가 그것은 천지의 生하고 生하고서도 그만 두려워하지 않는 생생발랄한 천지의 마음, 즉 우주의 왕성한 생명력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설은 朱子의 仁說에 근거하는 것이고, 李退溪도 『聖學十圖』에 게재하고 있는 것이다.

道學의 재인식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는 있지 못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항상 나타나도록 敬을 주로 하여 끊임없이 수양을 쌓고 쌓아 자기의 심혼과 기질을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순화시키고 인격을 도야하여 생명의 일대환회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철학적 실천윤리이고 수양학이다. 稻葉默齋는 道學을 결국 「기질변화를 목표하는 수양학」이라고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李退溪의 道學은 인간의 순수화를 목표하는 철학적 실천윤리 혹은 철학적 수양학이라고 성격부여하는 것이 알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道學의 학풍은 당시의 일반적인 학풍과도, 또 현대의 서구적인 학풍과도 그 성격이 어지간히 다른 것이 있다. 현대의 학문교육에 대하여 말하면, 사물을 되도록 객관적으로 방관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일의로 한다. 적어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인격의 도야를 제일의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인격의 도야 품성의 향상을 주목표로 하는 것이야말로 孔子나 朱子の 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계승한 것이 아니었던가. 세계가 동양에 구하고 있는 교육정신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李退溪는 居敬窮理의 수양법이나 교육법, 또는 靜坐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연구하여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벽에 부딪친 세계의 문명에 기여하는 所以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日本에서도 서구적인 학문관, 교육관에 지배되어 道學의 산 실학으로서의 성격이 낮게 평가되어 연구가 늦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한, 일, 중의 뜻있는 학자가 손을 잡고 더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연구를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李退溪의, 철저하게 해서 근본을 배양한다고 하는 수양학은 日本의 山崎派·大塚派로부터 특히 존중되어, 明治에 이르러 元田永孚의 사상을 통하여 明治의 교육방침의 확립에까지 간접적이거나 연관을 가졌다. 元田永孚는 明治천황 20세 때 侍講으로서 천황의 절대적으로

큰 신임을 받아 歐化주의 全盛의 明治 초년에 日本의 교육방침을 시정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 원전이 일찍이 「程朱의 학은 朝鮮의 李退溪에 전하고, 退野선생이 退溪所撰의 『朱子書節要』를 읽고 초연히 얻은 바 있었다. 이제 내가 退野의 학을 전하여 이것을 今上天皇에 바쳤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明治 12년에 明治천황은 元田에게 명하여 「敎學大旨」를 필록케 하여 「교학의 요는 仁義忠孝를 밝히고 그 위에 知識才藝를 다하는 것이 전통의 가르침이다」라고 하고 또 「도덕의 학은 孔子를 주로 하여 사람마다 성실품행을 존중하고 그런 위에 각 과의 학을 힘쓴다면 道德才藝 本末 全備하여 우리 나라 독립의 정신에 있어 宇內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교육은 어디까지나 도덕 修身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 설명되어 있다. 이것이 뒤의 敎育勅語의 연원이 된 것으로 明治 초년의 西歐流의 공리주의, 실천주의적인 교육방침을 일변케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 明治 19년, 東京대학에 行幸하였을 때에도 서구의 학술을 강구할 뿐 수신을 오로지 하는 和漢의 고전을 강구하지 않으면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政事治安의 道」를 알아 「들어와相이 될 만한 인재를 육성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元田은 이것을 「聖諭記」로서 기록하였다. 和漢의 고전을 修身을 주로 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서구의 학술과 구별한 점에 주의하여야만 하며, 거기에 학문의 목표를 어디까지나 도의 眞知實踐에 두는 道學과의 주장과 일맥의 관련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稻葉默齋의 李退溪觀

그런데 이상과 같은 明治 天皇, 元田永孚의 제언은 歐化主義 全盛의 明治 초년에는 획기적인 제언이었으나,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의견으로 특히 진기한 의견은 아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아 李退溪의 학설에 대해 생각해 보면 李退溪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을 뿐으로 특별히 珍稀한 說이 있는 것은 아니다. 稻葉默齋는

李退溪를 明代의 『讀書錄』의 저자 薛文淸과 비교하여 「李退溪에는 각별히 눈에 새로운,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것과 같은 언설도 없고 平實明白한 것을 平實明白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그 가운데 자연히 묘미가 있고 친절한 바가 있다. 이 점이 薛文淸보다 위대한 곳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고인은 「평생 마음이 이 道」라고도 「庸言을 말하고 庸行을 행한다」라고도 하고 있다. 李退溪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또 默齋는, 「李退溪는 한 평생 성인을 목표로 수양하고 쓰러질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말하자면 걸어가면서 쓰러진 것과 같은 사람으로 孔門의 顏淵과 같다. 그러므로 모범이 된다.」라고도 하고 있다. 그리하여 「孔子를 배우려고 하면 朱子를 배우라, 朱子를 배우려고 하면 李退溪를 안내자로 하라, 그리하여서만이 道의 把持處가 생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 稻葉迂齋이 개설한 朱書節要課會라고 하는 讀書會 겸 修養會를 계속하여 열었다. 그 課會의 규약이 오늘에 전하고 있는데 이회는 매일 早朝에 일어나 李退溪의 『朱子書節要』를 한 장, 혹은 한 절을 읽고 특히 매월 1일과 15일에는 예복을 입고서 節要의 서문과 발문을 완미하고, 월 1회 날을 정해서 회합하여 의문점을 토론한다든가, 또는 서로의 과실을 서로 講하는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회합이 千葉縣의 成東, 東金の 地區에 昭和의 십 수년까지 계속되어 행하여졌다. 또 冬至日에는 「李退溪의 뒤로 아직 이 도를 負荷하고자 하는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일구가 들어 있는 佐藤直方の 冬至文을 읽는 회합이 그럭저럭이기는 하나 현재에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李退溪의 마음이 佐藤直方, 稻葉默齋을 통하여 日本에 살아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맺음말

李退溪의 철학적 修養學은 어디까지나 근본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삼

는 것으로 孔子나 朱子の 마음과 행동을 배워 자기를 반성수양하는 실 천학이다. 朱子の 여러 가지 학설을 이론만으로 배워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山崎闇齋는 「이론만에 정신이 팔리면 도는 평생 보이지 않는다.」라고 갈파하고, 李退溪의 『朱子行狀註』나 『朱子書節要』를 통하여 朱子の 마음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배울 것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한, 그러나 따뜻한 본래성과 그 깊이에 있는 천지의 생생발랄한 생명력을 독실하게 믿어 인간을 순화해서 어떠한 곤란이나 유혹에도 지지 않는 확고한 道義心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闇齋는 그 기반에 서서 나아가 朱子の 正名主義를 발전시켜 日本의 명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을 주장하여 특히 日本의 國體에 맞추어 尊王論을 주창하였다. 闇齋派의 주장이 맥맥히 후세에 전하여 明治維新의 사상적 一大 원류가 되었던 것은 철저하게 근본을 배양하는 道學을 이어 받고 게다가 道學을 日本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재건은 도덕의 재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또 「이 道가 일어나면 이 나라가 일어나고, 이 道가 쇠하면 이 나라가 쇠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도덕의 재건도, 이 도의 진흥도 결국 각자가 특히 지도자가 수양을 힘써 스스로에 도덕을 재건하여 이 도를 차차 주위의 사람들에게 미루어 넓히는 것 말고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퇴계의 「言行通述」에 李退溪의 心事를 기술하여 「근본을 배양하고 사림을 扶植하는 것을 當今の 急務로 삼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림 즉 당시의 지식인, 엘리트의 다툼을 鎮定하고 도의심을 확립할 것을 先務로 하였던 것이다.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孔子의 도를 밝히고 근본의 배양을 역설한 李退溪의 마음을 더 한층 정밀하게 연구하고, 수양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이것을 세계에 밝힐 필요를 통감하는 바이다. 시간 관계상 설명이 불충분하였으나 상세한 것은 나의 저서 논문에서 보완하여 주신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